

지역개발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남 행복시대’ 연다

— 교통 · 감염병 부문 전국 최하위, 산업 인프라 확대로 지역 경쟁력 높여야 —

나 경 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cona@cerik.re.kr

대표적 인프라 공약은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민선 7기 전남도정의 방향으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발표했다. 도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5대 도정 방침으로는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 만족 문화관광, 살고 싶은 농·산·어촌, 감동 주는 맞춤형복지, 소통하는 혁신도정을 확정하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도정 방침 중 건설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는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공약이다. 지역개발에서는 총 12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공약은 저속 구간 전라선(익산~여수)의 고속철도 추진,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전남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살고 싶은 우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성,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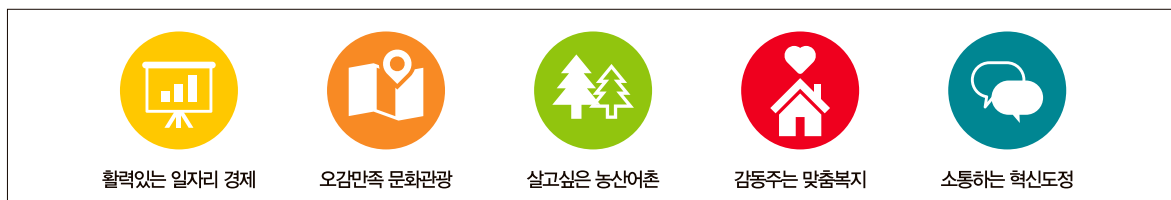
문화관광으로는 총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선 국제회의장(컨벤션센터) 건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국립순천민속박물관 및 세계판소리센터 건립 추진, 국제자동차경주장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다도해 섬을 한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건설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전남도지사가 밝힌 이들 공약을 내용, 사업 목표, 우선순위 선정 및 이행 절차 등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인프라 수준 전국에서 최하위, 재정 안정성도 취약

지역 인프라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등급¹⁾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남은 교통, 감염병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자연재해 부문이 4등급, 안전사고 부

전남도의 5대 도정 방침



자료 : 전남도청 홈페이지.

1) 지역안전등급은 1등급이 가장 안전한 수준임. 행정안전부에서 상대 등급(1~5등급)으로 부여함.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임.

〈표 1〉 건설산업과 연관된 김영록 지사 공약 리스트

지역개발 공약	내용	사업 목표	우선순위 선정 및 이행 절차
저속 구간 전라선(익산~여수)의 고속철도 건설 추진	• 전남 동부권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해양 생태 관광의 중심축 개발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철도 건설 추진	저속 구간인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화 사업 추진으로 동부권 3,000만 관광객 시대 구축	1. 2019년 또는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추진 2.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21~40년) 1단계에 반영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건설 추진	•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사업을 통해 시간·거리 단축 및 영·호남 교류 강화로 동서 화합 도모 • 지역개발과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 수행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및 고속화 건설 추진	1. 남해안 철도(목포~보성)의 단선철도 공사와 병행하여 전철화 추진 2.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반영 3. 남해안 철도 중 단선 전철 구간의 복선 전철화 추진 계획 수립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방사선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서남권에 원자력의학원 건립 • 방사선 융복합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	방사선 재난 대응 및 암 치료에 특화된 전문 의료기관 구축	광주·전남 합동 유치 TF 구성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유치를 위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추진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전남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앵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주혁신단지 내 전남 TP 2단지 조성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통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유치 지원	1. 나주시 혁신산단 부지 제공(2만5,000평) 2. 기업유치동,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성	•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회복	아름답고 계속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만들기	1. 도시재생 뉴딜사업 T/F 조직 및 사업 발굴 2. 시·군별 뉴딜사업 추진 지원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정부 지원 사업)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 호남고속철도, 남해안 철도를 제주까지 이어 가시이변에 따른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축 형성	서남해안과 제주 관광의 활성화 및 경제의 새로운 활로 마련	1. 위치 :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 - 사업 내용 : 길이 167km(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 지상 66km(목포~해남), · 교량 28km(해남~보길도), · 해저터널 73km 2.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 반영 건의
문화관광 공약	내용	사업 목표	우선순위 선정 및 이행 절차
국제회의장(컨벤션센터) 건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제회의장 설립 및 남해안권 MICE 산업의 거점화 • 박람회장 중심의 신관광 루트를 형성	국제행사 개최 기반 마련으로 남해안권 MICE 산업의 중심 도시 건립	1. 컨벤션센터 설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2. 2020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유치 및 개최 3.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여수시 무상 양여 추진
국립순천민속박물관 및 세계판소리센터 건립 사업 추진	•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향유를 위해, 국립순천민속박물관을 유치 및 건립 판소리 문화유산을 집대성한 세계판소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	역사문화자산의 균등한 향유 및 불평등 해소 • 호남 지역 곳곳에 산재한 판소리 문화유산 집대성	1. 국립순천민속박물관 유치 건립 2. 낙안읍성, 고인돌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3. 국제적 규모의 세계판소리센터 건립
국제 자동차경주장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모터테마파크)으로 조성해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용도 제고	• 일반인들에게 모터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경주장에 방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레이싱 교육, 기초 종목 및 인재 육성을 통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1. 다목적 트랙(ON·OFF), 모터스포츠 체험관 등 자동차(바이크)를 보고, 만지고, 즐기는 모터 테마파크 조성 2. 카트장, 모터스포츠 체험관, 호텔, 교통안전 교육장 등의 추가 시설 조성을 추진해 복합 문화공간 조성
국립 바둑박물관 건립	• 바둑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바둑 관련 사료의 집대성 필요성 증대 • 바둑 명인의 산실인 목포권역(영암)에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추진	바둑 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국 바둑의 '뿌리'인 전남인의 자긍심 고취	1.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2. 대한민국 바둑의 뿌리로서 바둑관련 사료의 집대성 사업 지원 3.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로 바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바둑의 저변 확대
다도해 섬의 한국 대표 관광 명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다도해 섬의 관광 명소화 • 해양 힐링 산업이 미래 전남의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 미래 지향적 연구 통해 보존과 개발을 병행	•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섬 관광 발전의 선도 가능 수행 • 상징적이고 특화된 관광 테마 개발에 따른 인프라 확충	1. 섬 지역 무료 와이파이 기반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혁신공항 건설 조기 완료 및 해양항공 관광 운영 및 지원 3. 국립섬발전진흥원 설립 4. 홍도, 흑산도 일원에 해중공원 및 해양관광 수목원 조성

자료 : 김영록 전남도지사 홈페이지.



전남 곡성군 내 동악체육공원 모습.

문도 3등급으로 좋지 않다.

다음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살펴보면 10년 후인 2027년 기준, 전남의 1·2종 시설물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중이 항만 43.8%, 댐 76.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축물 12.2%, 하천 18.4%, 상하수도 32.8%가 노후화 시설물로 분류될 전망이다.

〈표 2〉는 인프라 유형별로 전남 지역 인프라 실태의 문제점 및 세부 진단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남의 인프라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재정적 안전성도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다도해 섬과 산간 지역 등 낙후 지역이 많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의 개선 의지나 자체 예산 확대만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universal)인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복한 전남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방향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전남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인 전남의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개선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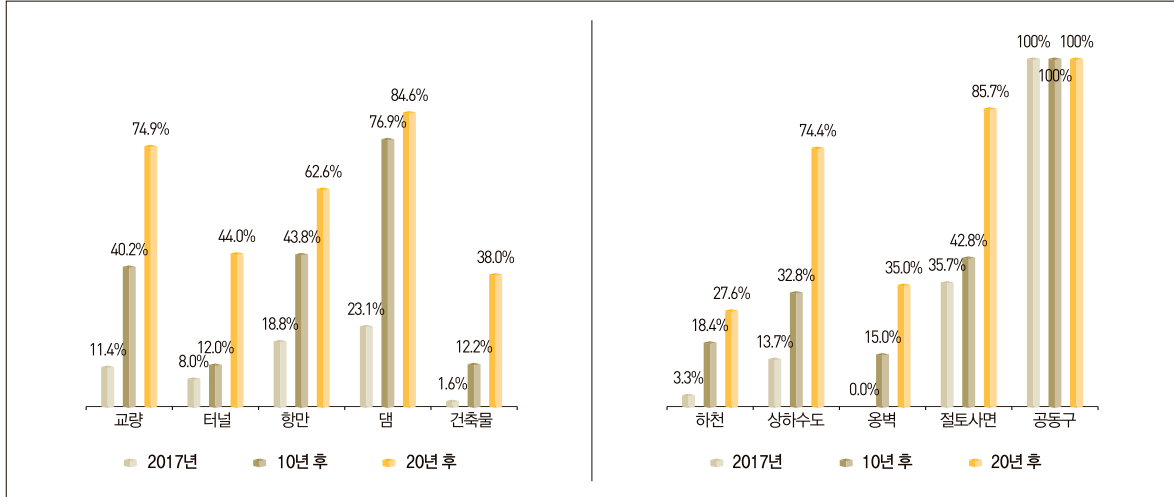
도시·낙후 지역 교통망 정비 등 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남의 생활 인프라는 타 지역 대비 매우 열악한 상태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보급률 향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확대 및 안전 인프라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도시·낙후 지역 연계망 구축 등 전남 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동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화된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인프라 확충, 거점 도시간 연계 강화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유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설계 및 보강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가 강조하는 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다.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진, 안전 확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타 지역보다 전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발현되어 절대적 행복뿐만 아니라 상대적 행복도 임기 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END**

〈그림 2〉 전남의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노후화 전망



〈표 2〉 전남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결과

구분	주요 문제점	세부 진단 결과
교통 인프라	- 최근 관광객이 늘고 고속철도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역 간선도로가 부족하고 전남 지역 내 권역 간 연계망이 미흡 - 물류 기능의 핵심인 철도의 절대적인 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	- 전남 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76.5%, 전국 평균 85.3%)을 보이고 있음. 특히 지방도, 군도 등의 포장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도로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도로가 1,026km로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상황임. - 전남 지역의 철도 인프라시설은 도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선로의 노후화 및 선형 불량 등이 심각함.
정주 환경	- 전남 지역의 주거 환경은 매우 취약함. - 다른 주택 대비 연립주택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전국에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임.	- 전남 지역의 노후 주택 비중은 전체의 33.5%(2016년 인구주택총조사)로서 전국에서 최고임. - 전남 지역 공개(빈집)는 10만 2,000호로 경기(16만 8,000호), 경북(10만 8,000호) 다음으로 높음. 인구 감소로 공·폐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생활 인프라	전남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저(81.4%)이며, 누수율은 26.1%로 전국 평균(11.1%)을 크게 상회 →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급수난 및 누수 피해 지속	- 안전한 수돗물을 도서·낙후 지역을 포함한 각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가 필요 - 공연장 및 기타 문화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열악한 실정임.
산업단지	- 전남 지역은 96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나, 광양(1984년), 대불(1989년) 등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화 산업단지가 다수 있음. -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는 환경 피해는 물론 산업 단지를 통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지장 초래	지난 10년간(2003~2013년), 전남 지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903개사 증가하는 데 그침.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입주업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5.6%, 전국 평균 9.2%).
방재 인프라	전남 지역의 공공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2,531개소임. 이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33.2%에 불과	- 지역 특성상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고, 지진 피해도 우려 - 전남 지역 내에서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하여 약 6,000억원의 복구 비용 발생 2018년 행정안전부의 등급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가'등급(재해시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 106개소로 전국 광역자치체 중 가장 많음.